

일일벤처체험

한국DMB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선도자로 DMB 방송을 이끌어 가고 있는

한국DMB(대표 김경선). 꿈처럼 느껴졌던 '내 손 안의 TV'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동성, 개인성,

양방향성으로 기존 미디어와 차별되는 뉴미디어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DMB를 방문했다.



뉴미디어를 장악한 젊은 방송

한국DMB



이번 일일벤처체험의 주인공 이현용 씨는 지난 해 두 차례 가졌던 방송 출현을 계기로 한국DMB와 인연을 맺었다. DMB 유저들 사이에서는 알려질 만큼 알려진 유명인사인 이 씨는 사용자 커뮤니티 'DMB유저닷컴' 대표이기도 하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DMB 단말기만 20여 종이 넘는 DMB 마니아이며 영캅의 광팬이다. 영캅의 제작과정과 한국 DMB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다는 이현용 씨와 영캅의 장한나 아나운서와 함께했다.



DMB 다운 DMB 방송을 실현하는 <한국DMB>

방송국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화사하고 밝은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는 한국 DMB.

뉴미디어를 이끄는 젊은 방송 한국DMB의 채널인 '1 to 1'(원투원)은 DMB 특성에 근거한 편성전략과 채널구성을 수립해 DMB 대표채널로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DMB 대표 프로그램 '영화쿠폰 캡처를 잡아라(이하 영캅)'는 지상파디지털방송용으로 한국DMB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장한나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다. 이날 이현용 씨의 안내역을 맡은 장한나 씨는



국내 최초 DMB

아나운서다.

한국 DMB

체험을 시작한 이

현용 씨는 복도 한 곁에

마련된 진열대에서 시판된 DMB

단말기들을 보고는 DMB 마니아답게

스텝들도 모르고 있던 정보를 속속들

이 설명해주고 관계자들과 정보를 교

류하기도 했다. 이어서 한국DMB의

대표 프로그램 “영화쿠폰 캡처를 잡

아라” 제작회의에 참석했는데 종합

편집실에서 시작된 회의는 체험자 이 씨를 배려해 영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더해졌다.

지난 3월 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 6시 30분 DMB 시청자들에게 방송되는 영캡은 일일 생방송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직접 문자와 포토메일을 보내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소개되고 이렇게 당첨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과 연계된 극장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영캡은 무엇보다 영화를 소재로 양방향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DMB 단말기 고유 특성인 화면캡처를 이용한 ‘가장 DMB다운 DMB방송’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 혜택을 줌으로써 ‘모바일 바코드를 이용한 TV쿠폰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산하기도 했다.

직장인들의 퇴근시간과도 맞물려 더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캡은 시청자가 직접 영화 속 주인공으로 참여해 UCC 모델의 사이버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총 방송시간 27분 동안 평균 700여 개의 문자와 100여 개의 포토메일이 도착하는데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이장 과 군수’는 개봉 2주 만에 영캡을 통해 1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 되어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시청자와 실시간 교감한다

장 아나운서는 “생방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요일별로 참여율이 편차를 보여 재미있어요. 우선 목요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요, 금요일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비오는 날에는 시청자 참여가 폭주하기도 해요. DMB 특성 자체가 이동성이 강하다 보니 참여율이 높은 편이에요”라며 “영캡은 DMB의 장점을 잘 살린 DMB 방송입니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교감하며 TV와 라디오의 장점만을 살렸다고 할 수 있죠”라며 <영캡>의 자랑스러움을 들려준다.





“방송 시작한 지 2개월이 채 안 됐는데 매번 방송 때마다 보내 주시는 마니아 팬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분들끼리 실제로 만나서 친목도 쌓고 영캡 얘기도 많이 나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요. 진행하면서 감동도 많이 받고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캡은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송

페스티벌 ‘MIPTV’를 수상하며 양질의 프로그램임을 인정받은 바 있다.

회의를 마치고 이동한 스튜디오에서 장 아나운서의 영캡 리허설에 참여한 이 씨는 버츄얼 스튜디오에서 MC를 비롯해서 PD, AD, 작가 등 스텝들의 바쁜 움직임 속에 방송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리허설을 마친 후엔 버츄얼 스튜디오에 들어가 장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을 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었다. “색다른 경험이라 설레기도 했는데 막상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조명 받으니깐 괜히 긴장이 되던데요. 조명이 뜨겁고,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니 농담도 못하겠던데, 장한나 아나운서 대단하네요”라고 말하는 이 씨. 그는 “스튜디오 안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영캡은 생방송 이다보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문자와 사진



에 관한 내용이 멘트의 주가 되네요. 때문에 대본이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애드리브로 하신데요”라며 리허설 체험의 새로움과 만족스러움을 전했다. 장 아나운서의 제안으로 이현용 씨는 직접 사진을 찍어 영캡에 보내기도 했는데 ‘주인공 도전 나 어때’라는 프로그램에 실제 방송되기도 했다. ‘주인공 도전 나 어때’는 영화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는 영캡 코너 중 하나로 이날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포스터를 사용했다. 로미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되자 멋지게 웃는 이현용 씨. “셀카도 몇 번 찍어보지 않았는데 방송까지 나간다니 쑥스럽네요. 일일체험 진행하면서 촬영한 것도 많은데 오늘은 사진 정말 많이 찍어보네요”라며 즐거운 기색이다. 모두가 긴장했던 생방송이 끝나고 스텝들과 방송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장 아나운서와 이현용 씨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함께 이날 방송을 모니터 하며 촬영을 마무리 했다.



“KOVA 회원사 홍보에 활용하시길”

인터뷰를 마치며 장한나 아나운서는 “제가 MC를 맡고 있는 영캡은 DMB 대표 프로그램이자 시청자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도 여러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 활기차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젊은 방송 채널인 원투원이 젊은 세대들에게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KOVA의 우수한 회사들의 제품을 홍보하는데 저희 영캡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과 영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라며 영캡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2007 MIPTV Cross-Platform Formats부문 우수상
2007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대상 수상 모습



미니인터뷰 이현용 씨

처음 DMB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묻자 이현용 씨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어렸을 때는 TV를 볼 때 채널 선택권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보는 채널을 어쩔 수 없이 봤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대학교 때 우연한 기회에 DMB를 접하게 됐어요.” 그 때부

터 DMB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찾는데 생각처럼 원하는 자료를 얻는 것이 쉽지 않더군요. 신문이나 TV 등의 매체가 아니면 전시회 정도였으니까요. 해외기사도 찾아보고 했지만 혼자 알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죠. 그 때가 2004년 전이니까 DMB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2004년에 본격적으로 DMB유저닷컴을 창업하게 됐어요”라며 DMB유저닷컴에 대한 설명을 이었다.

“한마디로 유저들의 의견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저 또한 궁금한 점들을 다른 유저들에게 배울 수도 있으니 일석 몇 조름 되겠네요.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 유저들도 늘고 다양한 매체에서 협조 요청도 많았어요. 지금도 2만 명 가량의 유저들이 활동 중입니다.”

한국DMB와 DMB유저닷컴의 상생관계를 재삼 확인한 이현용 씨는 나서는 길이 못내 아쉬웠는지 사람좋은 웃음으로 한마디 덧붙인다.

“한국DMB 화이팅~!”

